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7월 2일(금)
...(음력 5월 23일)...
Пятница
2 июля 2021г.
№ 26 (1194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의 첫 일요일 러시아에서 강 및 바다 함대 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한다. <네벨스코이 해군 대장>선박이다

(사할린 주정부 사이트에서)

사할린, 제4차 북방 원주민 원조계획 채택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특별회의에서 2021~2025년 제4차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발전 지원계획 시행에 대해 합의했다.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대표위원회와 사할린 주정부, <사할린 에너지>회사 간의 3자 프로그램은 민간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할린 원주민들의 전통 거주지 7개 지역에서 58명의 대표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하였다.

블라디미르 상기 님프 소설가에 따르면, 북방 소수민족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서 원주민들에 대한 사회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사할린 북부에서의 오토츠크해 개발 사업 등에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합의되었다고 한다.

제4차 지원계획은 이전부터 시작되어 2021년에 와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매년 7개 토착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일련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개별 협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최종 3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설문 결과도 고려되었다.

총회를 마무리면서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전 거주 지역 회의에서 선정된 50명의 대표들이 제 4차 지원 계획의 이행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UN 토착민 권리선언에 명시된 자유, 사전 및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사할린 에너지>회사는 앞으로 5년간의 새로운 프로그램 협정 체결식은 올해 3/4분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할린, 연방 쿠릴 프로그램 중간 결과 발표

지난 6월 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연방 평의회의(러시아 연방의회의 상원) 연방 구조·지역 정책·지방 자치·북부지역 문제 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연방 기관 및 지역 당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의 핵심 주제는 쿠릴 열도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

쿠릴열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총 477억 루블리가 배정되었다.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인 약 220억 루블리는 개인 투자였다. 거의 200억 루블리가 지역 예산에서 할당되었고, 59억 루블리는 연방 예산에서 할당되었다.

주거용 건물, 교육용, 문화, 스포츠, 주

택공공경리 시설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150개 건물은 공사중이다.

또한, 11개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주경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되었다.

연방 국가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지역 경제의 발전이다.

우선 어업 단지의 활발한 개발이다. 이 분야 성장율이 3.5배 증가했다. 해상 선박 2척 건조, 항공기 구매, 도로 35km 운영 등 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됐다. 쿠릴열도에 펼쳐진 사업들에 고급 전문가들을 유치했다.

(2면에 계속)

사할린 대표팀, WorldSkills Russia 결승전 준비

사할린주 확대 대표팀이 제 9회 국내 챔피언십 WorldSkills Russia의 기준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 공인 러시아 기술 전문가들이 이틀간 집중적으로 "대회 참가를 위한 지역 인력 양성"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을 위한 팀 구성을 목표로 했고, 결승에서 직접 작업 매커니즘을 결정하고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사할린 팀은 제 6회 주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참가자들로 구성되었다. 대표팀의 각 멤버에 대해 심리학자 및 코치와의 수업을 포함한 개인 훈련 일정이

결정되었다. 사할린 대표팀은 26개 부문에서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76개 지역에서 600명의 주니어 선수들을 포함한 1,8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전국 결승에 참가할 것이다. 러시아 참가자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독립 국가 연합의 대표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제 9회 국내 챔피언십 '젊은 전문가'의 결승에 사할린 지역 선수 34명이 참가할 것이다. 대회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우파에서 열린다고 사할린 주 인적자원 개발정보부에서 전했다.

단신

사할린 주내, 대규모 군사 훈련 진행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방공군은 모의 적군의 수륙 양용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였다.

이 훈련에는 10,000여명의 군인들과 약 500개의 장비, 수십 대의 항공기, 그리고 다목적 태평양 함대의 10척 이상의 선박들이 동원되었다.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상륙한 모의 적군의 수륙 양용 강습은 방공군 소속 부대에 의해 훈련 과정에서 저지되었다. 훈련은 사할린, 이투루프, 쿠나쉬르 섬 총 세 곳에서 이루어졌다.

동부대 참모는 훈련을 실시할 때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모든 기동 단계에서 양측(방공군 및 수륙 양용 대)의 작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훈련 결과에 따르면, 육군 부대들이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고 동부대 홍보실이 전했다.

임산부 및 한부모를 위한 새로운 보조금 신청 시작

7월 1일부터 러시아 연금 펀드는 임신부와 8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를 가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할린 주의 경우, 임신부에게는 8,466루블리, 한부모 가정은 자녀 1인당 8,650루블리가 매월 지급된다.

임신 12주가 되면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원책으로는 8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조금은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 조건은 가정의 1인당 평균 소득이다. 규정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가계 소득이 사할린 주의 1인당 최저생계비인 15,906루블리 미만이어야 한다. 수당은 종합 평가에 기초하여 배정된다.

사할린 주, 코로나19 현 상황

사할린 주정부는 6월 30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발표했다.

1,02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49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70명. 병원의 입원 가능한 빈자리는 64개. 6월 30일 신규 확진자 77명. 이날 기준 백신 접종자는 2,560명이며, 총 106,937명이 백신을 접종.

백신 재고량은 34,176 도즈.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겪은 사람들 중 약 30,000명이 면역이 형성된 상태이다.

사할린 주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90,139명의 주민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출장소, 영주귀국 신청서 341건 접수 올해 영주귀국 신청 6월 30일 마감

이미 전달된 바와 같이 올해 영주귀국사업은 2020년 4월말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 대상 범위 확대도 달성되어 올해 영주귀국 사업 규모가 커졌다.

지원 대상은 사할린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이다. 직계비속 같은 경우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한다고 해서 처음 영주귀국 신청을 하는 1세와 그의 동반가족, 그리고 이미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이 이번 영주귀국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소장 광기동) 측에 의하면 올해 영주귀국지원 프로그램에 사할린동포1세대 19명이 신규 신청을 했으며 (동반가족 포함 46명), 한국으로 이미 영주귀국한 1세들의 신청도 322건(동반가족 포함 864명) 접수했다. 이렇게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를 통한 올해 영주귀국 실제 지원자는 588명이 된다.

이는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가능 대상 인원수 (총 35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다.

게다가 영주귀국 신청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외에는 한국 적십자사와 다른 외교 공관(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통해 접수했으니 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귀국 신청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관에 서 임시 직원 2명을 고용했고 접수 업무가 매우 바빴다고 했다. 특히 4-5월에 지원자가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20-30명이었다. 그외 전화로 수많은 상담을 하였다.

7월 1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에서는 모든 신청서 원본을 한국으로 발송했다.

아래에 영주귀국 사업 절차를 다시 안내해 드린다.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결정

○ 신청 접수('21.3.1.-6.30.)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안) 선정('21.7.) → 대한적십자사, 외교부에 대상자(안) 전달 및 승인 요청('21.8.) → 외교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본인 통보('21.9.)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21.10. 예정)

○ 2021년도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내역 및 국내생활 관련 정보(임대주택 등) 안내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 '21.12월중 영주귀국 실시(약 15회 / 회차별 약 10-40명 입국)

※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캠프 운영('21.12.-'22.2.)

○ △건강검진, △정착 지원, △국적판정 신청 및 국적취득

한국측에서는 사할린동포의 원활한 정착 및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해 가능한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올해는 안산과 인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연방 쿠릴 프로그램 중간 결과 발표 (1면의 계속)

쿠릴 열도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주민들은 섬에서 미래를 계획하려는 의지가 생겼다고 알렉세이 벨리크 주정부 수상(총재)이 언급했다.

<2016~2025년 쿠릴열도 사회경제개발 연방국가프로그램> 시행에 연방 예산에서 추가 자금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필요한 재정은 250억 루블리이다. 이 자금은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쿠릴 열도는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재생 에너지원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력 산업 프로젝트가 5개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문제도 있다. 파라무쉬르섬 주민들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중 광섬유 통신선을 설치해야 한다.

파라무쉬르는 또한 새로운 정박 단지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오네코탄 군도" 관광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방파제로 이투루프 섬의 정박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한 항해와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것이다.

쿠릴 열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참여가 필요한 다른 사업 분야로는 침몰 선박의 처리와 더불어 건축 부지 부족 및 시설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석재 채취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법적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사업 시행 첫 5년간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다.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사회시설이 들어서고 재건축되었으며, 쿠릴 열도에 아스팔트 포장의 처음으로 시공되었고, 사람들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고 있다. 그러나 쿠릴 열도의 자원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방 센터 측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액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연방 평의회 연방 구조·지역 정책·지방자치·북부지역 문제 위원회 부위원장 블라디미르 고로제츠키가 말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들은 연방 행정 당국에 추가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이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백신 접종 확인서 발급 절차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누구나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이러한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기능 센터 사무소의 기능이 확장될 예정이다.

공공 서비스 포털에 계정을 등록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고령의 주민들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제 다기능 센터에서 확인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 포털의 확인서는 병원측 보건요원이 작성한 백신접종자료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는 후에 개인 계정에 표시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포털에 확인된 계정이 있어야 한다. "이제 다기능센터에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즉시 문서를 인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할린 주 부수상(부총재) 블라디미르 유슈크가 말했다.

다기능센터의 각 사무실에는 공공 서비스 포털 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인증서를 현장에서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장비도 구비된다. 또한, 사할린 지역 주민들은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 확인서에는 환자의 정보와 백신 접종 날짜가 표시된다.

연금 및 사회보조금 발급 절차 변경

7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는 연금과 사회보조금을 국가납부 시스템 '미르'의 카드에만, 그리고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한 통장에만 송금된다. 이 목적으로 비자 및 마스터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미르"카드는 연금을 지급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연금펀드로 카드내역을 전해야 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포털, 러시아연방 연금펀드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 펀드의 고객 서비스 또는 다기능센터 등을 통해 할수 있다고 "로시스카야 가제타"에서 밝혔다.

만약 연금 수급자가 7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할 시간이 없다면, 은행은 카드에 연결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다. 만약 그런 계좌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불을 위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11일째가 되면 은행측에서는 해당 금액을 러시아연방 연금펀드로 환원할 것이다.

연금을 국가지급시스템 "미르"로 이전해야 하는 요건은 "국민지급시스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처음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날짜가 미뤄졌다.

В России изменится порядок получения пенсий и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С 1 июля россияне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енсии или со-выплаты только на карты национальной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ы "Мир", а также на счета или вклады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полнения и снятия. Карты Visa и MasterCard для этих целей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е будут.

Получить карту "Мир" можно в банке, через который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енсия. после этого человеку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дать реквизиты карты 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Сделать это можно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на сайте ПФР, клиентскую службу фонда или МФЦ, напоминает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Если пенсионер не успеет оформить карту до 1 июля, банк зачислит деньги на счет, не привязанный к карте. Если такого счета нет, человека уведомя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явиться за выплатой в течение 10 рабочих дней. На 11-й день банк вернет средства в ПФР.

(8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마추어 극단 국제연극축제로 수상

6월 2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인형극장과 극장들의 국제 비엔날레 KUKART에서 '라두가(무지개)'민속문화센터의 연극 스튜디오 '황금열쇠'가 수상하였다.

KUKART는 199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 러시아 최대 인형극 포럼이다. 이 행사에는 러시아 외에도 불가리아, 독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중국, 세르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극단들도 모인다. 올해 제15회 KUKART 페스티벌 비엔날레는 전문 극단과 개인 인형극단 및 아마추어 단체들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대통령 장려금 펀드의 지원을 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범 연극단 <황금열쇠>는 박 블라디미르의 원작인 시로, 한 살라스필스 청소년 수용소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헌정하는 단편극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나'(감독 안나 마코베츠키야, 연출 알렉산드르 마코베츠키)를 축제에서 선보였다. 그 결과 그룹의 멤버 아리아나 말리쉬가 "뛰어난 연기력과 높은 전문성"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상은 유명 연극 감독이자 제작자인 페스티벌 운영위원장 다비드 부르만으로부터 수여되었다.

"살라스필스"는 파시스트의 집단 수용소 중 가장 끔찍한 수용소 중 하나로, 3년도 안 되어 7천 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다. 이곳은 독일 병원의 혈액량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어린 수감자들로부터 피를 뽑아 내던 혈액 공장이었다. 아리아나 말리쉬는 잠시라도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철조망 너머로라도 엄마의 손을 만져보고 싶어 했던 한 소년의 운명에 대해 전한다. 이 희곡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민속 문화센터 "라두가(무지개)"에서 전했다.

Любительский театр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24 июня на проходящем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биеннале кукольных и синтетических театров КУКАРТ образцовая театральная студия "Золотой ключик" центра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Радуга" отмечена дипломом лауреата.

КУКАРТ проводится с 1993 года с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раз в два года и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форумом кукольников в России.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яет театр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и зарубежья (Болгарии, Германии, Израиля, Казахстана, КНР, Сербии, Финляндии и Эстонии). В этом году 15-й по счёту фестиваль-биеннале КУКАРТ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проекты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театров, так и частных театров кукол и любитель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оект поддержан Фондом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Образцовая театральная студия "Золотой ключик"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ставила на фестивале моно-спектакль "Сколько страданий судьбой завещано" (режиссёр Анна Маковецкая-Петросян, художник-постановщик Александр Маковецкий), основанный на стихотворении Владимира Бака и посвященный событиям, которые разворачивались в стенах детского концлагеря "Саласпилс". По итогам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ца коллектива Ариана Малыш отмечена дипломом лауреата "За талантливое актёрское исполнение и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Награда получена из рук президента и директора фестиваля-биеннале Давида Бурмана — извест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режиссёра и продюсера.

"Саласпилс" — один из самых страшных из фашистских концлагерей, где за 3 неполных года были замучены до смерти более 7 тысяч детей. Это фабрика крови, которую выкачивали из маленьких узников для пополнения запасов немецких госпиталей. В постановке Ариана Малыш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удьбе мальчика, мечтающего хоть на мгновение увидеть маму, а если повезёт, то даже коснуться её руки через колючую проволоку.

Спектакль раскрывает одну из самых трагичных страниц нашей истории, о которой нельзя забыть, сообщает ЦНК "Радуга".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3월부터 3개월동안 <글 쓰는 사할린>이란 반이 운영되었는데 강사는 최 빅토리아 작가였다. 수강생들은 러시아어로 과거를 되새기며 가족에 대한 글을 써보았다. 이병일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은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애쓰고 있다. 수강생들의 우수 작품은 이미 본지 러시아어면에 실렸다. 이병일 원장도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보았다. 이 글은 아래에 게재한다. 러시아어 번역본은 4면에 실린다.

본사 편집부

어머니에 대한 영상

#외모

어머니는 논밭을 많이 가진 집에 태어났으나 당시 딸들에게 교육을 안시키던 풍조 탓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나 피부는 고우셨고, 얼굴에선 반지르한 빛이 났다. 치아를 다 뽑고 틀니를 하시기 전 쪼그라든 얼굴을 하고 계셨으나 늘 웃으시는 밝은 얼굴에 여전히 빛이 나는 듯 했다.

부자집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가난한 아버지와 결혼하시고 술한 고생을 하셨다. 아마도 어려운 집에 태어나 자랐다면 그러려니 했겠으나, 가난한 집에서 먹을 것만 들어 내고, 밥상 차려내고, 친척 식구들까지 살던 시집에서 무던히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 엄마를 알아본 이후로 그다지 화를 내는 일을 본 적이 없다.

화장대에서 구리모를 바르시고, 가끔 없는 눈썹을 그리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지금도 집에 가면 어머니의 눈썹을 만져본다. 그리고 그 고왔던 피부에 잡힌 깊어진 주름을 한번 손끝으로 확인해 본다.

#나의 욕심주머니

어린시절 나는 보통 욕심이 많은 애가 아니었다. 과자를 먹으면 봉지채 많이 달라고 했고, 귤감이나 과자, 떡 등 잔치 후에 생기는 먹을거리를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지 않거나, 형제들 것이 많아 보이면 무턱대고 때를 쓰고, 주저앉아 발꿈치로 땅에 구멍을 뚫을 듯이 비벼대며 울었다. 그때는 엄마의 안색은 많이 어두워졌다. 달래다가 안되면, 빨래할 때 쓰던 넉적한 방망이를 찾으셨다. 나는 도망도 가지 않고 그것을 맞았다. 형은 맞을 일이 있으면 잘 도망가서 맞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내가 철 든 시절 언젠가 엄마는 '막내는 엄마가 때린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아서 무척 속상했다'고 하셨다. 아하.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맞아야지, 도망이라니? 그러나 부모마음은 자녀가 도망이라도 가야 때릴 일 없고 자식 때리지 않으면 속도 덜 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12살에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 서울로 왔다. 그 전까지 나의 욕심주머니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른 채 먹을 것이 있을 때마다, 물불 안가리고 작동하였고, 그 때마다 어머니의 안색은 아마도 엄청 어두웠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미래를 위한 결단 : 생이별

아마도 욕심주머니 외에도 어머니의 안색을 어둡게 한 것은 생이별일 것이다. 12살 3월초 아직 바람이 차던 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아들을 배웅하던 어머니의 얼굴은 깊고 긴 그늘이 드리워졌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을 못 쓰시던 어머니가 몇년전에 문해교육을 받으시고 자녀들에 대한 기억을 글로 쓰셨는데, 그 내용이 있었다. 어린 막내 아들을 태운 버스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다고 한다. 내 기억에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 멀어지는 엄마 얼굴, 아버지는 전쟁 전에 서울로 떠나 본 경험이 있으셔서 담담하셨을테지만 어머니는 좀 달랐을 것으로 본다. 손을 흔들며 멀어지던 어머니를 버스 뒷자리에서 자꾸만 자꾸만 뒤돌아 보던, 그때서야 내 결정이 무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가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와 나에게도 심장이 가라앉고 꺼져가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밝고 찬란한 반가움

엄마는 막내인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방학 다음날 고향에 내려가면 '옴모이, 막내 왔니?' 하며 밝게 웃으시며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리고 군대에서 외출이나 휴가 나와 고향에 닿으면, 발에서 일하시다가 생전 처음 일어나시는 것처럼 힘들게 일어 서시면서 '옴모이, 막내 왔구나, 고생 많지?' 하며 밝게 맞아 주셨다.

외국 땅에서 일하는 지금, 비자경신때문에 귀국했다가 하루 고향에 가면 늘어가는 아들이 혼자 외국땅에 사는 것에 대한 안스러움을 못 감추시고 또 밝게 맞아 주신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밝고 찬란한 어머니의 얼굴색은 형과 내가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에 합격한 소식이 적힌 전보를 받은 날이 아닐까 싶다.

12살에 서울 올라가, 숙부(작은아버지)댁에서 2년간, 어린나이에 눈칫밥 먹고, 형과 누나와 함께 한 자취생활 6년 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고대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전보를 우체부 아저씨가 전했던 그 순간 말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맥주를 대접하셨는데, 그 기쁨이 오죽했으랴 싶다.

자취생활 학창시절은 굶주리진 않았으나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하고 점심 도시락만 챙겨오는 날이 많았다. 그러면 점심을 먹기 한시간 전 즈음에는 하늘이 노랗게 빙빙 돌고, 땅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저녁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연탄불은 꺼져 있거나 빨래와 설거지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생활 속의 대학 합격은 나도 할일을 한 것으로 만족했고, 부모님도 많이 좋으셨을 거란 생각이 든다.

#어머니의 긍정, 심이 없는 노동

결국 나는 어린 시절 12년을 빼면,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적다. 일년에 서너번 뵈는 것이 전부였다. 어린 시절에 어버이날이 되면 나는 카네이션꽃을 사서 편지봉투에 넣어보려고 무척 여러번 시도를 했다. 그렇게라도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편지봉투에 넣어서라도 보내 드리려 했던 것이다.

나라가 가난하고 집안에도 별 재산될 것이 없던 시절, 그 욕심많은 아이는 교육자가 되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냥 저냥 먹고 사는 나를 보면서 편안해 보이신다. 걱정끼치는 자식은 아닌 것이다.

이제 엄마의 안색은 늘 밝으시다. '세상 일, 인간의 일이 다 그런 것이야.' 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다. 지금도 약초를 캐서서 서울 경동시장에 올려 보내 돈을 만드신다. 그 돈을 모아 모아서 손자 손녀 대학등록금에 보태라고 주신다. 코로나-19 때문에 설날에 오지 못했다고 용돈을 내게 주시면서 손자 손녀에게 전해 달라고 하신다.

빠마디, 허리 아프다 하시면서도 들과 언덕을 다니면서 미나리, 민들레, 머위 같은 약초를 찾아 나신다. 90세 춘추를 바라 보시면서도 늘 웃음을 띠고 여전히 바쁘시다.

너무 긴 세월 함께 하지 못했기에, 나는 열심히 자주, 정말 열심히 봐야 한다. 그 밝은 안색을 보기 위해 또 지켜드리기 위해 자주 찾아 봐야 하고, 잘 살아 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 제주포럼 계기에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 방안 등 밝혀...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및 씬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 주제발표

제16회 제주포럼 계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주제의 포럼 세션이 6.26(토) 평화의 섬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열렸다.

금번 세션은 재외동포재단이 2017년 5월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들이 제주포럼에 연계 참석한 이후 4년 만에, 제주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지속 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의 제주포럼’의 주제와 가치를 재외동포사회와 공감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

포럼 세션 진행은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씬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진오 상명대 교수,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이 기존의 경쟁위주 물질주의 삶의 패턴에서 환경중심 경제, 부의 공정배분, 국가간 불평등 해소 등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과 평화의 삶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생, 번영해야만 하는 생태적 문명의"후천 개벽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곤 이사장은 우리 한민족을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선천세계'의 가장 큰 피해민족으로 진단하고, 남한(5천2백만), 북한(2천6백만), 재외동포(750만) 세 그룹의 코리아으로 나눠지고 흩어졌으나, 이제 "원 코리아(One Korea)"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가 민족화해와 지역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아름답다"라는"고려(高麗)"이름을 갖고 있는 코리아는 유엔의"지구시민"과 같은 개념인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갖고 있지만, 세계 물질문명 충돌의 가장 큰 피해와 고난을 겪고 있으므로 "아파 본 사람이 치료자가 된다는 선병자의(先病者醫)"마음으로 전 세계인과 함께 정신문명을 창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상으로 미국에서 주제발표자로 참가한 씬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환경 보호를 향한 행동』 제하의 발표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번영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기후변화 위기에 K-방역 성공 등 글로벌시대의 리더가 되었다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차세대사업에 대해 감사와 평가를 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지에서 혁신성을 평가받고 있는 한인들이 비영리, 공익목적의 환경운동을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패널로 참가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재외동포 1세대들의'혈연-언어-지역-공동인식' 연결고리에서 차세대로 넘어갈수록'언어와 지역'은 느슨해지고 결국 '혈연과 공동인식'만 남게 되므로, 앞으로 한글교육 이외에 역사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와 차세대들을 가르치겠다는 공공자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발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패널로 참석한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문화인류학자의 관점에서 주제발표자들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를 당부하였고,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은 현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관계를 통해 남북관계, G2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녹색 한반도'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번 포럼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라종일 석좌교수는, 한국이 과거에는 모델을 따라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세계시민으로서 스스로 모델이 된다는 의식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제주포럼 세션 참여에 대해, "평화와 번영이라는 포럼 주제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 동포재단의 목표와 가치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미래지향적인 세계시민 한민족 공동체'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주최하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의 사전 등록이 6월 28일(월)부터 시작됐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19일(화)부터 10월 21일(목)까지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참가등록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9월 30일(목)까지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등록은 받지 않는다.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현장쇼룸 신청도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쇼룸의 경우, 사전 공간구성을 위해 9월 10일(금) 조기 마감될 예정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시행하는 세계한상대회에서 우리 한상분들을 만날 것이 기대된다. 충청 지역 최초 개최이자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에 한상 및 국내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번 대회는 현장 쇼룸을 비롯해 일대일비

즈니스미팅, 기업 IR,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Tel. 02-3415-0052)이나 카카오톡에서 '세계한상대회'로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사전 등록 6월 28일부터 시작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РК начальная стад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арианта коронавируса Дельта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ариант коронавируса Дельта,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ыявленный в Индии, продолжает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При этом 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РК находится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190 случаев, но их число начало быстро рас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смотра графика вакцинации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в июле ожидается поступление в страну 10 млн доз вакцин, а в августе и сентябре – ещё 70 млн.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менять в основном вакцины производства Pfizer и Moderna. Между тем, с ними связаны новые проблемы. В США после прививок данными вакцинами почти у пятисот молодых людей до 30 лет выявлены нарушения работы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На 7 млн сделанных прививок пришлось 484 сообщения о миокардите и перикардите. 309 человек были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ы, у 80% симптомы прошли. 9 человек находятся в больницах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врачей. В РК об этих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ах не сообщалось.

KBS World

В РК проходит масштабная скидочная акция

С 24 июня по 11 июля в РК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масштабная скидочная акция Тонхэн Сэйл. Она организована с целью улучшения положения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толкнувших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в связи с COVID-19. Учитывая эпиде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е в основном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бесконтактном формате. Около 1.200 магазинов, размещённых на крупнейших торговых онлайн площадках, предоставят скидки до 80%. Универмаги, торговые центры и традиционные рынки подготовили скидки до 50%. 150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бесплатную доставку товаров. Запланиров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выставк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товаров, а также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при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курсы для людей, решивших изложить на бумаге историю своей семьи. Группа называлась "Пишем вместе", приглашенным лектором стала начинающий литератор Виктория Цой. Удачные работы слушателей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страницах нашей газеты.

В этот раз перо опробова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Ли Бенг Иль.

Комментарий Цой Виктории: Наша группа «Пишем вместе» была создана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мистера Ли. Мы несколько раз беседовали с ним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 пробовал перевести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истории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но, к сожалению, он-лайн переводчики делают это не качественно.

Я была удивлена и тронута, когда однажды он сказал мне, что тоже написал историю о своей маме. Я попросила его прислать мне текст и попробовала его перевести с помощью гугл-переводчика. Результат был плачевным – набор непонятных слов, несвязанных и хаотичных. Я позволил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попросила моего дядю, Ким Бок Кона, помочь мне.

Он перевел рассказ мистера Ли, я слегка его отредактировала: поменяла порядок слов и правила пунктуацию.

Удивительно, как в этом рассказе чувствуется другая мелодия языка, отличные от нас традиции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жизни. Но теплота, с которой мы, взрослые люди, говорим о своих родителях, объединяет нас. Мы все и различны, и похожи.

Образ моей мамы

Ли Бенг Иль

прощание, то кажется, сердце матери и мое за-
мерли на мгновение.

Яркая и ослепительная радость

Когда я, младший сын, учился в школе Сеула и на каникулы приезжал домой, мама с радостной улыбкой встречала меня у двери со словами: «Ой, младший сыночек приехал?». Когда во время службы в армии или во время отпуски, я возвращался домой, мама бросала работу в огороде, тяжело выпрямлялась и с улыбкой встречала меня теми же теплыми словами: «Ой, младшенький приехал, наверное очень устал?». Когда я работал за границей и приезжал домой для продления визы, мама всегда радостно встречала меня, уже взрослого, сочувствуя тяготам моей работы за рубежом.

Думаю, что самым счастливым днем для мамы был день, когда она получила сообщение, что мы с братом поступили в институт на зависть соседям. До этого события в возрасте 12 лет я уехал в Сеул и в течение 2 лет проживал в семье младшего брата отца, кушая горькую кашу. Вместе с братом и сестрой мы ве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жизнь вдаль от родителей в течение 6 лет. Затем я поступил в институт. Дать своим детям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является заветной мечтой для всех родителей в Корею. Когда почтальон передал моим родителям телеграмму о моем поступлении в институт, вся деревня отмечала радость нашей семьи, угощаясь пивом.

Во время учебы в институте я не голодал, однако были дни, когда с утра не завтракал, а в обед слегка перекусывал. В такие дни за час до обеда у меня порой темнело в глазах, голова начинала кружиться, а земля уходила из-под ног.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я припадал к питьевой колонке и напивался водой.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домой меня ждала нетопленная печь, стирка и грязная посуда, ждущие своего часа. Но я преодолел все эти невзгоды и лишения и получил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Мои родители были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Благословение матери и бесконечный труд

На самом дел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12 лет детства, я очень мало времени был рядом с мамой. Мы лишь несколько раз виделись в течение года – только и всего. В детстве мне так и хотелось, купить гвоздики, вложить в конверт и отправить матери на День Родителей. Я очень мечтал обрадовать свою мать гвоздиками в конверте.

Рожденный в бедной стране, в семье не имеющей достатка, жадный ребенок стал педагогом. В детстве я не доставлял проблем родителям, они были спокойны за меня, глядя на мое беспечное детство.

Вспоминая светлый облик матери,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он выражает смысл слов – «каков мир, так и живут люди». Даже сейчас, в преклонном возрасте, она собирает лекарственные травы, отправляет их на рынок в Сеул,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немного денег от продажи. Эти деньги она копит, затем дает нам, чтобы добавили при оплате за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внуков и внучек. Из-за пандемии она не смогла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нуками на новый год, но передала эти деньги мне, чтобы я подарил их внукам на карманные расходы.

Несмотря на боли в пояснице и суставах, мать ходит по полям и оврагам, собирает минари, одуванчики, мать-и-мачеху и други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травы. Ей почти 90 лет, но она всегда улыбается и вечно занята.

Большую половину моей жизни меня не было рядом с мамой, поэтому наверстывая упущенное время, хочется, как можно чаще видеть ее, видеть ее улыбающееся лицо, ухаживать за ней. Мы счастливо проводим вместе время.

Моя мама родилась в семье, которая владела достаточным наделом земли, и в которой по традиции дочерям не давали образование.

Хотя она не ходила в школу, она знала ремесло швейного дела. Я помню ее сосредоточенное выражение лица, когда она продевала нитку в ушко иглолки, начиная шить. А вообще у мамы было всегда улыбающееся светлое лицо.

Она росла в зажиточной семье, и когда ее выдали замуж за отца, который был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ой семьи, ей пришлось вынести много тягот и лишений. Если бы она выросла в бедной семье, то хлопот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иготвлением еды, обслуживанием за столом, уборкой жилья в большой семье мужа были бы ей привычны, но для нее, привыкшей к другому, это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Но с самого момента своего рождения, я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 маму сердитой или недовольной. В моей памяти хранится образ матери, которая перед зеркалом туалетного столика наносит румяна на щеки, подводит ресницы. Даже сейчас, когда прихожу к ней домой, притрагиваясь к ее ресницам, чтобы убедиться все ли в порядке. Притрагиваясь к коже лица и пальцами чувствую глубину её морщин.

Моя жадная натура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я был жадным по натуре ребенком. Когда угощали, всегда просил все отдать мне. Если после банкета мне доставалось мало сушеной хурмы, пряников, лепешек и других угощений, и, казалось, что братьям дали больше, то в истерике валялся на земле, пяткой рыл яму и плакал. В такой момент лицо мамы хмурилось. Если я не успокаивался, она начинала искать скалку для стирки белья. А я не убежал и молча получал наказание. В такой же ситуации мой старший брат убежал и тем самым избегал наказания. Когда я подросток, как-то мама сказала «младший никогда не убежал, когда я собиралась наказывать его. И это меня больше огорчало».

А я считал, что когда родители наказывают, надо получить наказание, а не убежать. Однако в душе родителям хочется, чтобы дети убежали, и тем самым избавили от надобности их бить, это их больше успокаивало в душе, чем исполнение наказания. Это я понял потом, когда уже подросток.

Я не понимал меры своей жадности, и при виде вкусной еды, думал только о себе. Таким своим поведением я очень разочаровывал свою маму.

В 12 лет я покинул родной дом, родителей, брата и уехал в Сеул.

Разлука с семьей ради будущей перспективы

Сильнее моей безмерной жадности, мою маму огорчало наше временное расставание. Выражение лица матери было таким печальным, когда я садился автобус, который увозил меня в Сеул. Мне было тогда 12 лет. Это было начало марта, день был холодный. Вспоминаю, как почернело и покрылось морщинами ее лицо в момент нашего прощания. Когда мама начала учить корейскую письменность, она записала в дневнике, что долго смотрела на исчезающий вдаль автобус, который увозил еще маленького младшего сына. Я тоже помню этот момент. Удаляющееся лицо матери, обеспокоенное выражение неизвестностью судьбы младшенького в большом Сеуле, и отца, который до войны бывал в Сеуле и знал жизнь 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Думаю, что чувства матери и отца были разные. Сидя на заднем сиденье автобус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орачивался назад и смотрел на удаляющийся силуэт машущей рукой матери. В тот момент меня охватило сомнение в правильности нашего решения. Если сейчас вспоминать наше

На Сахалин поступила самая крупная за время иммунизации партия вакцины

28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ставлена партия вакцины ГамКовидВак (Спутник V) в количестве 36 тысяч доз. Такой объем препарата позволит провести иммунизацию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без сбоев.

Поступление вакцин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прямую от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Количество направляемых в регионы доз определяется исходя из объем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епар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лидер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поэтому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не допустить сбоев работы в островных пунктах вакцинации.

–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акциной в нужном количестве, ведутся прямые переговоры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корейшей доставки в Москву в конце недели был направлен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Благодаря общим усилиям наш регион получает вакцину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Вакцина доставлена на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й склад. Уже сегодня ее отправят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 За прошедшие выходные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привились более 2 тысяч человек – это чрезвычайно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будням спрос еще выше. Мы 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 иммунную защит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можно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и мобильных пунктах.

График работы медпунк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город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 1 (КДЦ) - с 9.00 до 19.00 ежедневно;

- город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 2 - с пн по пт с 8.00 до 19.00, сб - с 9.00 до 18.00;

- город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 4 - с пн по пт с 11.00 до 20.00, сб, вск - с 9.00 до 19.00;

- амбулатория Хомутово - с пн по пт с 11.00 до 15.00;

- город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 6 - с 9.00 до 18.00 ежедневно;

Мобильные пункты работают ежедневно:

- Дом торговли - с 11.00 до 18.00;

- ТЦ «Столица» - с 10.00 до 18.00;

- ТЦ «МегаБерезка» - с 10.00 до 18.00;

- ТРЦ «Сити-Молл» - с 10.00 до 19.00;

- площадь Победы - с 09.00 до 22.00;

- парк имени Гагарина - с 09.00 до 20.00.

Графики работы прививочных пунктов в районах размещены на официальных сайтах и страничка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соцсетях.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установили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ая эндоскопическая стойка и аппарат УЗИ-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дополнили диагностическую базу медучрежд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ступило на замену устаревших аппаратов и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выявления патологий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Наличие нового аппарата позволило разгрузить эндоскоп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Теперь здесь ес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о всех кабинетах, а врачи не скованы в расписании работы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техники.

– К нам пришло всё, что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Эндоскопическая стойк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фиброскопии, бронхоскопии, гастроскопии и колоноскопии. В новом комплексе улучш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диагностики и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лечебных манипуляций. Учитывая высокие разрешающие способности техники, время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уменьшается. Качество при этом не страдает. Обуч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этих аппаратов не требуетс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по медицинской части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Эдуард Винарский.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чают легкость в управлении новой техникой, удобство и безболезнен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процедур для пациентов.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твей Пастощук в прошлом спортсмен,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ит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этот раз врачи заподозрили небольшое изменение в желудке.

– Прошел процедуру быстро, подтвердилось наличие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 Но оно доброкачественное. Немного поволновался сначала, теперь стало легче на душе. Хорошо, чт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быстро разобраться с диагнозом, – рассказал мужчина.

Новый УЗИ-аппарат, также недавно поступивший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не стоит без дела. Ежедневно с его помощью проводят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десяткам людей. Вс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становлен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упление новой аппаратуры для отделения опухоли головы и шеи.

Отметим, ране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вити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ма еще раз прозвучала во время его отчета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 Важное для нас на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Теперь её оказывают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в районах. В Тымовском проводят сложнейшие операции на сердце с помощью нового ангиографа. Мы внедряем новые методы леч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р-

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хирургии, травматологии-ортопедии, онкологии, неврологии, урологии. Всег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по 18 профилям, – сказал тогда губернатор. – Важно работать на опережение и вовремя диагностировать болезнь. Поэтому сделали упор и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жителей.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службы развив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в круп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Так, в селах Восточка, Песчанское, Советское, Онор, Первомайск, Ныш, Березняки внедрены технологии «умного» ФАПА. Жители теперь могут сдать анализы и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ку, не выезжая в районный центр. А затем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зультатов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врачей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офилям дистанционно. До конца года это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в 11 фельдшерских пунктах.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40 моби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В 2020 году купили 15.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е еще трех. Это позволит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таком виде медпомощи.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федеральной курильской программы и обозначили задачи на следующие го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выездное совещание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федеративному устройству,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местному самоуправлению и делам Север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заседания стало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 2016 года 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правлено 47,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ущ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этих средств – в размере около 2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частн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или почти 2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 5,9 миллиарда.

Сда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более 50 объект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 жилые дома, объекты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ЖКХ. Еще на 150-ти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ются.

Кроме того, за счет внебюджетных источников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реализация 11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Важным итогом первого этапа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ло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этой сфере мы наблюдаем рост в 3,5 раза. Также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лась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 построено 2 морских судна, приобретен воздушный транспорт, сдано 35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Для работы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ривлечены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ак результат большой комплексной работы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желание людей строить свое будущее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Еще одной темой заседания стало привлеч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из госбюдже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2025 годы». Размер необходимой суммы – 2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Эти деньги предлагается направить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нацеленных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В частности,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необходима модернизац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мощностей.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спрос на электричество там вырос на четверть. К 2025 году он увеличится еще в 1,7 раза.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тики должно проходи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ализацией задач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лья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связи с этим разработаны 5 приорите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том числе – на баз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Кроме того,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сохраняется проблема «цифров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 у жителей Парамушира нет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го Интернета. Чтобы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необходимо проложить подводную оптоволоконную линию связи.

Также Парамушир нуждается в новом прич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Это повысит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острова и соз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грузообработки.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в связи с реализацие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Архипелаг Онекотан».

Волнозащит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необходимо «закрыть» глубоководный причал острова Итуруп.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мореплавания и надежное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островам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требующ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участия на Курилах – утилизация затонувших судов, а также помощь в преодолении правов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з-за которых возникли дефицит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проблема с добычей песка и камня,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возведения объектов.

– За первые пять лет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многое сделано. Построены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ы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в их числе –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и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первы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явился асфальт. Людей переселяют в новое жилье. Но есть твердая убежденность – ресурс островов использован не в полной мере. Одна из причин – недостаточна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ь финанс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этой

программы со стороны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овлиять на эту ситуацию – наша задача,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Городецки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федеративному устройству,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местному самоуправлению и делам Севера.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в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Франц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овместном решени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и развитии бизнеса

23 июня перспективные сфер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суд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ол Франции в России Пьер Лев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ранко-Российско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и руководители 13-ти крупных французских компаний. Делов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стенах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Партнер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Францие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уверенно развивается. Это касается вопросов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науки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ластя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я взяла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Парижскому соглашению о климат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ыбрана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Планируем в течение 5 лет добитьс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Надеемся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той работе с француз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ьер Леви поддержал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в, что борьба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и защита природы для Франции также имею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руководство регион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ранцузских компаний озвучили ряд предложени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их числе –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зданий и развитии медицины.

Интерес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к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связан с уникальным сочетанием его логистических преимуществ. Месторасположение области позволяет развиваться на рынках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 год поднялась с 30 на 8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ов с наи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климатом. Программа островов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объемом около 8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 создание свыше 11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уго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туризм, лес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производство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логистика.

Напомним, в 2020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и филиал французской компании Air Liquide,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ведущ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промышленных газов,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зидентств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парке.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с госкорпорацией «Росатом» и компанией Air Liquide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целью изуч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водор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гут составить от 30 до 10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лидер по вакцинации в стра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ышла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темпам вакцинации в стране. Об это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 доложила Президенту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ют высокая актив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и грамотно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региона иммунобиологическими препаратами.

Поставки вакцины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В связи с увеличившемся спросом поступление препарата в некоторы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может происходить с техническими задержками, так как вакцина требует особых условий хран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 В федеральном регистре отображаются все данные о потребности и темпах вакцинации в регионе.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формируется партия вакцины в субъект. С учетом высок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ших жителей проводятся переговоры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ставках, чтобы все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ли сделать вовремя прививку,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Учет вакцины проводится по всем медучреждениям. Пациенты, по каким-либо причинам не сумевшие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первым компонентом, вносятся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на ближайшие сроки. Со вторым компонентом, как правило, сложностей не возникает, так как его количество определено заранее по пациентам, сделавшим первую прививк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действовать алгоритмы записи на прививку в поликлинику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по телефону 1-300 и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силить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облегчить и ускорить различ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оцедуры, 24 июня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обсуждения итогов учас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ценки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регион занял восьмую строчку.

– Таких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всю историю рейтинга не было. Это большая командная работа. Очевидно, что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нимают, в к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до двигаться, а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 видя ре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ддерживает инициативу и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т проделанную работу, – выступ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Ольга Курилова.

В регионе добились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сфере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процессе подключения к электросетям. Вместе с тем многие пункты в рейтинге еще предстоит подтянуть.

– Безусловно, мы рады, что нашу работу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И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это оценка сам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днако нам необходимо стрем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улучшать позиции и дальше. Самая цель – это не высокие рейтинги, а реальное упрощение для бизнеса, а значит и приток новых инвесторов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отметили ряд пунктов, по которым 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планируют добитьс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Так, время постановки на кадастровый учет планируется сократить с нынешних 48 дней до 20.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ханизмы сейчас разрабатыв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ельных и иму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инархитектуры плотно работает над тем, чтобы на треть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зрабатывает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выпускников в промышлен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транспорте и связи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занятых в этом секторе.

Традиционно во время засед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кажд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ог обратиться с любым вопросом. Несколько обращений взяли в работу.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мэр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Артема Лазарева. Муниципалитет был признан лучши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ейтинг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региона за 2020 год.

На Сахалине заработал первы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Единую цифровую площадку открыли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Сотрудники учреждения занимаются обработкой обращений и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 жителе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сновная тематика работы –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ороги,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и вопросы ЖКХ. Информация поступает специалистам из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 из аккаунтов мэра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В открытии площадк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слышать каждого сахалинца и курильчанина. Для это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открыли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 перв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он хорошо себя показал. С его помощью мы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ли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ающие в наших городах во время сильных метелей, в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е периоды пандеми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области. – Не сомневайтесь, первы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обеспечит еще более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горожанами.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мках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ем за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Муниципальный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заработал на базе МКУ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учреждения, из городских аккаунтов в соцсетях поступает 750 обращений в месяц. На отработку каждого уходит не более суток. При этом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хватает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К примеру, в начале июня мэру Сергею Надсадину в одной из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поступило обращение от жительницы города.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в сквере Невельск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клумб, а земли в вазонах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Профи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оперативно выехали на место и высадили на участке цветы.

Еще один решенный вопрос – жительниц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могли записать ребенка в логопедический детский сад. О том, что для её малыша не нашли места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она сообщила в Инстаграме.

– Мы не могли не поддержать вектор на открытость власти,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культурный код при работе с людьми, заданный личн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для меня стала уже привычным делом. Я начинаю свой день с просмотра сообщений в Фейсбуке и Инстаграме. На основе обраще-

ний, требующих оперативной реакции, формирую график инспекционных поездок, – поделился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Муниципальный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и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работают сообща. Задачи между ними распределяю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 вопрос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шаются на областном уровне, а проблемы некачественного ремонта дорог и дворов – на город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ые центры управления также создадут в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Холмске, Невельске и Аниве. Единые цифровые площадки откроют в этом году.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открыл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ращения от жителей сотрудники учреждения принимают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В поле зрения попадают сообщения и комментарии, оставленные в аккаунтах губернатора,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проще получить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 вакцинации

Каждый гражданин, прошедший вакцинацию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сертификат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Для упрощения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егионе будут расшир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офисов МФЦ. Эта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вязи с обращениями в его адрес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Сложности регистрации и дальнейше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учетной запис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 с этими проблемами сталкивается большинство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Теперь помощь в получении сертификата им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в МФЦ.

– Сертификат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формирует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на основании данных по вакцинации, которые заполняют медработники поликлиник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н отображается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Н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его, нужно иметь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учетную запись на портале. На этом этапе возникае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Теперь в офисах МФЦ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не только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этим процессам, но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тут же распечатать документ,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В каждом офисе МФЦ будут выделены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объяснить процедуру регистраци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Также будет приобретена аппаратура для печати сертификатов на месте. Эти услуги уже доступны в главном офисе МФЦ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у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48.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ни появятся и в других точках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Такж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ликлинике смогут взять аналог сертификата о вакцинации –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аботодателю или для других целей иногда бывает достаточно медицинской справки.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казание таких услуг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в каждом медучреждении, проводящем вакцинацию,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правку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в поликлинике или в моби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двух этапов вакцинации.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будет обратиться к администратору поликлиники или медработнику моби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правке будут отображены данные по пациенту и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читал мэров за сбои в продажах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наладить торговлю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и для этого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ставки продукции не менее 2-х раз в неделю. Однако далеко не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заданная ритмичность поставок и торговли.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 Обращаюсь к мэрам. Если вы считаете, что жителям ваших районов рыба не нужна – делайте офи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скажите об этом во всеуслышание. Но я с такой позицией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 согласен. Уверен, люди тоже, – заяв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овали более 85 тонн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ы. В лидерах по объему и частоте поставо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саков и Анива.

– Ассортимент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которую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огут поставить для жителе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компании,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ется сезонностью. В начале года в него входили навага, треска, минтай и камбала. Теперь в перечень входит 10 позиций. В различные периоды лова в их числе – корюшка, терпуг, мойва, красноперка, сельдь и кундж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раслевого агентства Иван Радченко.

Напомним,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реализуют продукцию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Например, камбалу продают по цене от 28 до 8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минтай – от 40 до 90 рублей, треску – от 37 до 90 рублей, сельдь – от 33 до 45 рублей, мойву – от 30 до 80 рублей. Цена

зависит от удаленности района доставки. Стоимость замороженной рыбы в магазинах в полтора-два раза выше.

Приобрести дары моря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можно на ярмарочных площадках и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https://www.instagram.com/agent_ribalka65.

Первы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азовых сетей во Владимировке завершат в декабре

Оцени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голубого топлива жители района смогут следующим летом.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ключить 405 домов.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ты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правления капит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тей проходи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учениям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область до 2025 года. Во Владимировке эта работа разбита на 7 этапов.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подрядчик проложил 8,5 километра сетей. Осталось еще 5,5 километра. Полная газификация района будет завершена в 2024 году,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Первый этап газификации Владимировки проходит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Памятная, Лермонтова, Матросова и Холмского шоссе. На объектах прокладывают внутрипоселковые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газовые трубы.

– Мы выкапываем траншею, свариваем трубы между собой и укладываем их в землю. Затем выводим газовые стояки до границ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Траншея находится в открытом состоянии не более суток. Положили трубы и сразу же закопали. Чтобы, например, траншею не залило водой, – рассказал о технолог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директор ЗАО «Тепло плюс» Федор Че.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етей подрядчик выполнит опрессовочные и продувочные работы, а затем передаст объект эксплуатиру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Чтобы подключиться к газу, ж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ить внутридомовую обвязку. Для ускорения процесса домовладельцам уже сейчас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технических рекомендаций от АО «Газпром газораспределени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дрес организ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39. Телефон: +7 (4242) 49-63-33. Затраты на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сумму до 152 тысяч рублей.

Отметим, для газоснабжения Владимировки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иродный газ островного шельфа, транспортируемый по газопроводу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Топливо подается от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й станции «Дальнее» к блочному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му пункту во Владимировку, а оттуда – к конечным потребителям.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газификации.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около 1200 километров газопроводов,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свыше 35 тысяч домов и более 150 предприятий и котельных. Для у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а автономная газификация за счет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Ремонт крыши дома на проспекте Ми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встрече с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овместно с мэро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ход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и пообщался с жителями дома № 157 по проспекту Мира, пострадавшего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 Подрядчику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в самые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восстановить стропильную систему, сделать обрешетку и укрыть кровлю,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ротечек во время дождей. Сейчас мы видим, что строители справились. Будем и дальше держать на контроле работы до их пол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дновременно ведутся внутренние работы: укрепление стропильной системы, замена утеплителя, обустройство карнизов, водосточной системы, вентиляционных шахт и другие.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ладимира Тишкова, на этой неделе рабочие приступят к замене верхней разводки системы отопления. По контракту срок окончания ремонта 13 сентября, но строители стараются опережать график, чтобы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 У нас квартира на пятом этаже. Недавно был дождь, вода с крыши не текла. Строители работают быстро. Пока временно с семьей живем у мамы.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получили. Сотрудники мэрии с нами постоянно в контакте. Единственное, хотелось, чтобы с бригадой ремонтников помогли, – поделилась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жительница дома Екатерины Цыганкова.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ообщил, что на сигнал уже отреагир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Семье окажут поддержку в этом вопрос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모저모

(2편의 계속)

Требование о переводе пенсий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платежную систему "Мир" закреплено законом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е". Изначально эту норму хотели ввести с 1 июля 2020 года, но из-за пандемии сроки изменились.

사할린, 주민들에 대한 야심찬 쇼를 시작

사할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쇼 "스피치카(성냥)"가 유튜브에서 방영되고 있다. 사할린 주민들은 이미 첫 방송을 시청했고 서로 감상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사할린에서는 도저히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쇼이다. 첫 게스트는 결혼식, 기업 행사, 기념일 등을 조직하는 빅토르 아바코브이다."라고 첫 비디오의 요약정보에서 밝히고 있다.

영상은 약 20분이다. 이 시간 동안 게스트는 자신, 일, 계획에 대해 그리고 왜 그가 사할린에서 살고 일하는지 이야기한다. 특히 빅토르 아바코브는 사할린을 좋아하고 사할린에서 러시아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행자

는 "사할린에서는 아주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쇼의 첫 방송분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일부 댓글에서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амбициозное шоу о жителях острова

На YouTube выходит новое шоу о сахалинцах - "Спичка". Зрители уже оценили первый выпуск и по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Это шоу, в котором мы будем уничтожать стереотип о том,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невозмо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себя! Наш первый гость - Виктор Абаков, ведущий свадеб, корпоративов, юбилеев", - говорится в описании к первому ролику.

Выпуск длится около 20 минут. За это время гость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ебе, о работе, о планах и о том, почему он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на Сахалине. В частности, Виктор Аба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ему на острове нравится и здесь он может зарабатывать больше, чем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Также ведущий отметил,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кайфово".

Зрител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первый выпуск шоу. Часть комментаторов отметили, что и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когда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земляках.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제7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공고문

1. 실시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021년 7월 5일~7월 26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사할린 한국교육원(전화 505-696)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TOPIK1) 800루블, (TOPIK2) 1,000루블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증명사진 2매(3cm×4cm), 응시 수수료, 신분증
- 성적 발표: 2021년 11월 25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2. 시험 시행

- 시험 일자: 2021년 10월 17일(일)
- 시험 장소: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한인문화센터 내)

사할린한국교육원

본사 이예식 기자님의 부친 이은봉 씨가 중환으로 2021년 7월 1일 95세를 일기로 안산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보를 접한 이예식 기자님, 힘내세요.

새고려신문사 전·현 사원 일동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